

# 전국 YMCA 창업게임대회 대상 수상

## 포천중고 비스쿨 동아리 벤처모의창업게임대회서

포천종합고등학교(교장 이광호) 비스쿨 동아리(지도교사 한은경)가 제3회 전국 YMCA 청소년 벤처 모의 창업게임대회에서 '프린세스 플라워' (CEO : 임혜은/포천종합고3)로 참가하여 최고상인 으뜸상(산업자문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들이 창업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습득하고 기업가적 도전정신을 키우며 경제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된 이번 대회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되어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사업 프리젠테이션 ▶소비자 조사를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수행 ▶판매실적에 따른 재무제표 발표 등의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것.

'프린세스 플라워'는 포천종합고등학교 창업동아리 회원 4명이 창업한 기업으로서 현대인 생활의 고급화와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 취향에 부응하여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채취한 들꽃을 이용한 압화를 소재로 하여 각종 생활용품과 약세시리를 제작, 판매하는 기업이다.

임혜은 학생 등 4명의 학생이 지난 봄부터 3차에 걸친 어려운 심사 끝에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게 돼 상금 1백50만원 받기도 했다. 비스쿨 동아리 한은경 지도교사는 "지난달 29일 6시간 동안 진행된 마지막 발표회장은 정말 흥분의 도가니였고 포천중고 비스쿨 동아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임혜은 비스쿨 동아리 회장은 "선생님들의 지도아래 열심히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그동안 도움을 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프린세스 플라워'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감수성을 살린 제품 제작 ▶중소도시의 시장 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쇼핑몰 (http://www.ipochon.com)을 이용한 판매 ▶지역 사회 친연자원을 들꽃을 직접 채취하여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정기적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종합고등학교 비스쿨 동아리(지도교사 한은경)가 제3회 전국 YMCA 청소년 벤처 모의 창업게임대회에서 '프린세스 플라워'로 참가하여 최고상인 으뜸상을 수상했다.

## 교육칼럼



이진구 위북초등학교 교장

지난 토요일부터 이번주 토요일까지 부산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회의가 21개국 회원국 대통령들이 모여 잘살아보자는 경제회의를 개최하는데 각국의 정상, 각료, 기업인, 언론인 등 5000여명의 국가 대표자들이 오며, 미국은 대통령을 따라오는 분만 1000여명이 넘고 호텔 한 개를 통째로 빌렸다고 하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라 이런 회의에도 한국 대표로 참가하여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한몫을 해주기 바라겠어요.

지난 금요일 11일 날은 무슨 날이었지요, 그래요? 여러분의 생활을 보시기 위하여 경기

칼고 가려고 금혼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 때 사제인 발렌타이가 반대를 하자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감옥에서 간수의 딸을 사랑하게 되어 사랑장으로 끌려 가면서 연인에게 "당신의 발렌타이입니다..."라는 쪽지를 보낸 것에서부터 발렌타이가 유래되어 지금은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발렌타이 데이이 되면 초콜릿을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데 초콜릿 속에는 도파민이라는 만능스럽고 기쁜 감정을 갖게 하는 뇌 화학물질을 많이 분비하게 하여 사랑을 하게 한다고 해요. 이와같은 데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즐기는 것은 생활에 즐거움을 주고 활력을 준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상술에 의한 낭

## 외국의 날보다 우리나라 날을 기억하자!

도 제2청사에서 장학관님과 장학사님이 오셔서 병설유치원 원아들의 수업을 보고 가셨는데 칭찬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11일은 빼빼로데이이기도 하지요? 일자가 4개 겹치는 날이니까 빼빼로를 많이 먹자는 장사꾼들의 상술이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날을 짓가락 날이라 부르는 분이 있고, 중국에서는 독신자의 날이라고도 해요.

이런 빼빼로 날 말고는 또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발렌타이데이나 화이트데이, 4월 13일의 블랙데이, 5월14일의 옐로우데이, 6월14일의 로즈데이, 7월14일의 키스데이, 8월14일의 링데이, 9월14일의 포스트데이, 10월31일의 할로윈데이, 11월14일의 인게속데이, 12월14일의 머니데이, 1월14일의 다이어리데이와 같은 수입 축제가 많은데, 원래 발렌타이데이는 로마에 전

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10월31일의 유치원들이 하는 할러윈 데이는 학급당 50만원씩의 준비금이 필요하며, 1인당 15만원 정도의 캔디나 소품이 필요하더니 이런 데이들이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보다는 우리 나라에서 만든 삼겹살 데이인 3월3일, 4월9일의 백숙데이, 5월2일의 오리,오이데이, 10월24일의 사과 데이를 우리는 기억하여 농·축산물의 생산에 도움을 받고 있는 농·축산농가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린들은 앞으로 우리의 기념일, 국경일, 문화를 아끼고 잘 가꾸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해요. 인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러분 가정에도 김장 준비하느라 부모님들이 바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손도 집안 돕는 일에 써 보세요.

## 아빠 어렸을 적에(45)

### 불장난

'불났다' 하면 재비율, '싸웠다' 하면 심재, '농약 먹었다' 하면 먼 두둑, '도둑맞았다' 하면 만기데란 말이 있었습다. 그만큼 우리 동네는 불이 잘 났지요. 동네에는 집집마다 거의 불 한 번씩 나지 않은 집이 없사피 하답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아이들의 불장난을 못하게 할 수 밖에요.

불장난은 성냥을 가지고 온 사람이 대장입니다. 성냥을 가져온 사람이 먼저 불을 지피면 불을 쪼이고 싶은 사람은 나무를 해와야 불을 쬐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빨간색을 주워 오기 싫어서 개울가에 있는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고목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고목나무는 어른들의 팔로 두 아를름 되는 나무였는데 가끔 무당들이 천을 걸고 치성을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요.

고목나무는 처음에는 불을 붙이려 하여도 잘 타지 않더니 불이 붙자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하였지요. 우리들은 멀리서 불을 쪼

이며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다. "야, 큰일나겠다. 저러다 다 타 버리면 어떻게 하지..." 위낙에 마을의 중앙에서 몇 백년 이어져 내려오던 고목나무인 지라 신양처럼 떠받들어졌고 아이들이 불을 질러 놓고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이 어느 정도 불자 아이들은 불을 끄자며 물을 퍼다 끼얹고 모래를 뿌리며 애단범석이었습다.

그러나 고목나무는 이내 타 쓰러졌습다. 그리고 없어지고 말았지요. 미신을 믿는 동네 몇몇 아주머니들은 '큰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며 걱정을 하였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다.

비람이 매서운 날도 우리들은 군부대 밑에 있는 작은 저수지로 쉼대를 타러 갑니다.

한동안 짐재기 놀이를 하며 쉼대를 타다 보면 실증이 나기도 하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접근금지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군부대 철조망

근처에서 불장난합니다. 그날도 불장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람이 갑자기 세게 불더니 불길은 순식간에 바짝 마른 풀숲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길에 치 달는 철조망 안에는 군부대 수송차가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불길의 맹위는 대단하였습다. 불길은 군부대 쪽을 향하여 맹렬하게 타 들어갔습다. 아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줄행랑을 놓기 시작하였고 불장난에 가담하지 않았던 아이들마저 모두 달

아났습다. 군부대에서는 비상이 걸렸을 긴급수차와 수많은 군인들이 동원되어 거의 다 타 들어간 풀숲의 불길을 잡았습다.

마을의 앞 벌판에는 탈곡을 하고 난 볏짚을 쌓아 놓은 볏짚 남가리가 군데군데 있었습다.

볶짚은 보통 소의 먹이로 사용하였지만 빨간으로도 사용하고, 새끼줄을 꼬거나 가마니 멍석 등을 짜는데 쓰이는 바릴 것이 없

## 김순진의 연재 수필



김 순 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농사의 부유물이지요.

그날도 개울에서 놀다 추위와 장난기를 이기지 못하고 쪼단을 태우며 불장난을 하였습다.

쪼단을 태우니 짙게 매달려 있던 버 알갱이들이 푹푹 튀면서 하얗게 속살을 드러냈습다. 우리들은 입이 시켜땀겨 주워 먹었습다.

"야, 우리 한꺼번에 다섯 단쯤 불을 놓아보지."

한 아이는 쪼단을 가져다 불을 놓았고 개울 비람 앞에 볏짚 불씨는 하늘로 날아가며 큰 볏짚 남가리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 불

은 사흘이나 타고, 후일 그 볏짚 주인은 다른 동네서 소먹이로 볏짚을 사와야만 하였습다.

## 학생명예기자칼럼

### 나 자신에 대한 도전

나에게 너만의 공간이 생겼다.

6학년때, 엄마와 아빠가 교육문제에 언니와 나를 따로 송우리 주공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셨다. 내 집이 생긴다는 마음에 가슴도 설레고, 너무나 무 좋았다.

엄마의 "연수야, 일어나!"라는 말 대신, 알람 벨소리가 귓가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겨우 1년을 생활 했을 뿐인데, '내가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일어나 학교에 갈 때, 밥을 혼자 차려 먹을때... 점점 혼자 있는 생활이 싫어졌다. 14살인 나에게는 너무 바쁜 생활이라는 불평이 생겼다.

일주일만 한번씩 주말에 집에 가면 아빠를 볼 수 있지만 아빠는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엄마도 바쁘셔서 늦게 들어오시면 난 또, 혼자가 되는 느낌이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보니 언제

부터인가 혼자인 것이 더 좋을때도 있었다. 적음이 되어서 그런 것 같다. 토요일 밤에도 아빠가 늦게 들어오셔서 겨울밤에 홀로 잤소 착유를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도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못내 아쉬웠다.

월요일이면 다시 송우리로 와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원에 갔다 집에 돌아오면 11시30분이고, 숙제를 하다보면 12시30분이다. 나에게도 힘든 생활이지만 나보다 몇 천배, 몇 만배 더욱 힘들고 우리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시며 믿고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또다른 모습의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보다 더 일찍,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성공을 맛 볼 수 있더라는 것처럼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걸고 오는 하루 앞서 한발 더 나아가며.....

아빠, 엄마께 실망시키드리지 않고 나의 새롭고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내가 되기 위해 나 자신과의 첫 번째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김연수(동남중 1년)



# 비닐특수인쇄 · 가공전문 비닐포장지 제조판매 풍산그라비아 송우점

비닐포장지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보유시설

- 인쇄 8색기 : 2대
- 라미 레이팅 : 1대
- 드라이 라미 : 1대
- 특수 M방기 : 2대
- 지퍼 삼방기 : 3대
- 스투타 : 2대
- 기능성가공기 보유



풍산그라비아는? 전자동 제조설비를 갖춘 전문업체

### 생산품목

- 나이론 진공 포장지
- 잠곡 봉투
- 야채 봉투
- 육가공
- 떡·면류
- 차·선식류

**풍산 그라비아 송우점**  
POONGSAN GRAUVRE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282-2 · 본사/공장 : 536-3531 · 송우점 : 543-3531